

고려시대 궁궐 내 불교행사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Rituals Held at the Palaces in the Goryeo Dynasty - Focu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of Goryeosa and Goryeosajeolyo -

저자 (Authors)	우성훈 Woo, Seong-Hoon
출처 (Source)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12) , 2015.12, 131-142(12 pag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1(12) , 2015.12, 131-142(12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6575320
APA Style	우성훈 (2015). 고려시대 궁궐 내 불교행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 31(12), 131-1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시대 궁궐 내 불교행사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Rituals Held at the Palaces in the Goryeo Dynasty

- Focu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of Goryeosa and Goryeosajeolyo -

우 성 훈*
Woo, Seong-Hoon

.....

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on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Buddhist rituals, relationship with held places and Buddhist rituals, and characteristics and hierarchy of the places, in the Goryeo Dynasty, based on a close study of historical rec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difference of the held times of Buddhist rituals reflected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Secondly, kind or purpose of Buddhist rituals differentiated according its held places. Finally, the kind and purpose of Buddhist rituals provided some clues on the hierarchy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in the palace.

.....

키워드 : 고려시대, 불교, 불교행사, 궁궐
Keywords : Goryeo Dynasty, Buddhism, Buddhist Ritual, Palace

.....

1. 서 론

고려시대 불교는 고려인들의 의식세계와 일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Park, 1996). 태조는, 사망하기 직전 후대의 국왕들에게 남긴 훈요 10조에서, '고려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제불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선교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한다.'¹⁾고 하여, 불교와 사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태조는 재위 기간 동안 25곳 이상의 사원을 건립하였으며,²⁾ 이후, 역대의 국왕과 관료들은 물론, 일반민들에 의한 사원 건립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 결과, 고려시대 사원의 수는 파악된 것만 2-3천에 이르며(Han, 1998) 승려의 수는 고려 전체 인구의 3분의 1³⁾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⁴⁾

사원이나 승려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는데,⁵⁾ 이에 대해서는 주로 문헌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들 선행 연구는, 불교행사의 종류와 특성을 규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사의 개최 배경과 고려시대 불교행사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An, 1999; Hong, 1994; Lee, 1993; Okumura, 1979).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에 열렸던 다양한 불교행사의 명칭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나, 불교행사가 개최된 시기별 특징이나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주요 자료로 활용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한계 때문이다. 즉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시대에 유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것으로, 불교 관련 기록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윤색되었다.⁶⁾ 뿐만 아니라, 불교 관련 기록은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며, 이것조차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례(常例)로 된 것은 처음의 것만 기록하여 생략된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하여 불교행사와 관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Ph. D.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gkyungwan University, uno210@gmail.com)
1) 『Goryeosajeolyo』 卷之1 太祖神聖大王·『Goryeosa』 卷第2 世家 2 太祖2, 二十六(943)年夏四月.
2) 태조가 사원을 건립한 것은, 후삼국 통합을 도와준 불교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Goryeosa』 世家 7 文宗1, 九(1055)年冬十月.
3) 『宋史』 卷487 列傳第246 外國3 高麗 結論, …男女二百十萬口兵民僧各居其一…….
4) 개경 내 사원의 경우, “…高麗王氏 事佛甚謹 城中名刹三百……”(『大東野乘』 卷5, 五山說林草稿)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30 여 곳의 개경 사원이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Han, 1998).
5) 66종의 불교행사가 1,300회 이상 개최되었다고도 한다(Lee, 1993).
6) An, 1999, p.22.

런된 대부분이 개최 사실만 기록한 단순한 자료에 불과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불교행사에 대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보다 상세하고 방대한 자료도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최 사실만 기록한 단순한 자료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불교행사의 개최 주이나 배경, 그리고 불교행사의 종류와 개최 장소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불교행사 관련 기록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그 동안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개최 사실만 기록된 단편적인 자료를 망라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불교행사의 시기별 개최 추이를 밝히고, 그것의 변화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고려사』 예지의 팔관회와 연등회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그 동안 뚜렷한 연구 성과가 없는 불교행사 개최 장소의 시설 배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전체 기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종교행사는 종교시설인 사원은 물론, 산천,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청, 궁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최되었다. 특히 궁궐은 각종 재해와 재난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불교행사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궁궐 내 불교행사에 대한 검토는 고려시대 불교행사의 개최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개최 장소였던 궁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행사의 개최 배경과 변화, 그리고 개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의 이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불교행사의 개최배경과 의례

2.1 불교행사의 개최 배경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포함하여 각종 불교행사가, 1,200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Table 1 참조). 비록 이들 대부분이 불교행사의 개최 사실만을 다룬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지만, 고려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 불교행사의 명칭과 개최 횟수는, 시기별 불교행사의 개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불교행사의 개최 횟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연등회가 171회, 소재도량이 159회, 인왕도량이 122회 팔관회가 119회로 전체 불교행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연등회는 부처를,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천, 그리고 용신을 섬기는 것으로, 국왕과 신하들이 함께 즐기는 정기적인 행사였다.⁷⁾ 이들 행사의 뒤를 이어 보살계, 장경도량, 불정도량, 신중도량, 나한재, 제석도량, 반

야경도량, 금강경도량, 금광명경도량, 공덕천도량, 화엄경도량, 문수회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고려시대의 불교행사는 100회 이상 확인되는 예종, 의종, 명종, 200회 가까이 확인되는 고종 때 많이 개최되었다. 46년간 재위한 고종처럼, 국왕의 재위 기간이 길수록 개최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12년간 재위한 강종이 8회에 그친데 비하여, 4년간 재위한 충목왕은 19회나 개최하였다(Table 1 참조). 재위 기간과 개최 횟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불교행사가 특정한 목적이나 배경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예종, 의종, 명종, 그리고 고종 때 불교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종대는 요나라(遼: 907-1125)의 존재와 윤관에 의한 여진 정벌과 9성의 축성,⁸⁾ 그리고 금나라(金:1115-1234)의 건국 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외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던 시기였으며, 의종 재위 기간 중에는 이자겸의 난⁹⁾과 무신정변¹⁰⁾이 있었다. 명종은 여러 가지 불교행사를 통해, 무신 집권자에게 대항할 정도의 세력을 지니고 있던 사원 세력과 연대함으로써 왕권 복구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Hwang, 1993), 어느 시기보다 많은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던 고종대는 몽고(元)의 침입이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한편, 고려 초부터 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연등회, 팔관회, 소재도량, 인왕도량, 보살계 등과는 달리 불정도량은 충렬왕 이후, 그리고 나한재는 충선왕 이후 개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중·금강경·금광명경도량은 충렬왕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공민왕 때, 그리고 제석도량은 원종 이후, 반야경도량은 충선왕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공양왕 때 재개된다(Table 1 참조).

정종과 문종대를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던 불교행사가, 원 간섭기에 접어들면서 개최 횟수와 종류가 줄어들거나 일부의 경우 전혀 거행되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불정도량, 신중도량, 제석도량, 금강경도량, 금광명경도량 등은 공통적으로 호국법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Hong, 1994). 특히 신중도량¹¹⁾은 전체 39회 중 36회가 대몽 항쟁기인 고종 때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제석도량은 고려에서만 배설된 사실이 확인될 뿐, 중국에서는 거의 개최되지 않던 불교행사였다.¹²⁾ 원 정부가, 고려에

8) 『Goryeosa』 卷第12 世家12 睿宗1, 三(1108)年三月 尹耀 又築宜州通泰平戎三城 徙南界民 以實新築九城. 이것을「九城之役」으로 기록하고 있다(『Goryeosa』 卷第98 列傳11 許載).

9) 『Goryeosa』 卷第15 世家15 仁宗1, 四(1126)年二月辛酉.

10) 『Goryeosa』 卷第19 世家19 毅宗3, 二十四(1170)年八月丁丑.

11) 천병신중도량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과 관련된 호국적 법회였다(『東國李相國集』 卷第41, 釋道疏, 爲相府禳丹兵大集神衆道場跡; 同前願神衆法席一七日跡; 王輪寺神衆法席日齋跡). 『望月佛教大辭典』(望月信亨·塚本善隆, 4版, 世界聖典刊行協會, 東京, 1967-1974)에는 항목이 없는데, 이는 천병신중도량이 고려에서만 개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2) An, 1999, p.21.

7) 『Goryeosa』 卷第2 世家2 太祖2, 二十六(943)年夏四月.

Table 1. The Number of the held of Buddhist Rituals¹³⁾

Name of King (Reigning Period)	Buddhist Rituals																Other	Total (Number of times)
	Y D H	P G H	S J D	I W D	B S G	J G D	B J D	S J D	R H J	J S D	B Y G	G G D	G M D	G C D	H G D	M S H		
Taejo(918-934)	1	1	4	6
Haejong(943-945)
Jeongjong(945-949)	1	1
Gwangjong(949-975)
Gyeongjong(975-981)
Seongjong(981-997)	1	1
Mokjong(997-1009)	1	2	3
Hyeonjong(1009-1031)	2	1	.	4	.	1	3	11
Deokjong(1031-1034)	1	.	.	.	1	4	6
Jeongjong(1034-1046)	5	5	.	1	1	1	1	.	.	.	6	20	
Moonjong(1046-1083)	13	11	6	7	4	2	.	.	2	1	2	2	1	.	2	.	18	71
Soonjong(1083)
Seonjong(1083-1094)	1	4	2	4	2	2	1	.	1	1	.	2	2	.	1	.	14	37
Heonjong(1094-1095)	1	1
Sookjong(1095-1105)	10	11	3	8	1	2	3	1	6	2	3	1	.	.	1	.	21	73
Yejong(1105-1122)	11	7	13	12	7	1	5	.	2	2	6	4	.	.	1	.	44	115
Injong(1122-1146)	4	2	8	15	16	1	8	.	.	2	5	2	2	.	2	.	17	84
Uijong(1146-1170)	22	18	7	8	8	1	1	.	5	3	2	1	.	.	2	.	34	112
Myeongjong(1170-1197)	15	12	18	14	6	5	7	.	8	6	.	.	1	.	1	.	23	116
Shinjong(1197-1204)	1	5	3	1	1	.	1	.	2	1	2	17
Huijong(1204-1211)	3	4	1	2	.	.	1	5	16
Gangjong(1211-1213)	2	1	1	.	2	2	8
Gojong(1213-1259)	29	16	43	21	6	1	7	36	.	4	1	.	2	9	.	23	198	
Wonjong(1259-1274)	10	2	24	9	4	1	6	1	2	.	.	1	3	2	.	.	9	74
Chunghyeolwang(1274-1308)	15	5	16	4	2	19	.	.	2	.	1	.	.	.	1	.	26	91
Chungseonwang(1298, 1308-1313)	4	1	2	1	1	2	1	.	.	17	29
Chungsookwang(1313-1330, 1332-1339)	4	1	1	.	.	1	5	12
Chunghaewang(1330-1332, 1339-1344)	1	2	3
Chungmokwang(1344-1348)	3	2	1	1	1	1	10	19
Chungjeongwang(1348-1351)	1	1
Gongminwang(1351-1374)	7	5	7	10	1	.	.	1	.	.	.	1	1	1	1	8	33	76
Shinwoo(1374-1388)	5	2	4	1	.	.	3	5	20
Shinchang(1388-1389)	.	1	1
Gongyangwang(1389-1392)	.	2	1	1	6	10
Total(Number of times)	171	119	160	122	64	41	40	39	30	23	21	14	14	13	12	11	338	1,232

서 개최하던 신중도량이나 제석도량을 만원적인 성격의 불교행사로 이해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가(고려)에서 담선법회를 여는 것은 귀국

13) 고려사와 고려사절을 바탕으로 정리함. PGH=팔관회, YDH=연등회=연등회·관등, SJD=소제도량=소제·불정소제·성변소제도량, JGD=장경도량=장경도량·장경회, GGD=금강경도량=금강·금강경도량, GMD=금광명경도량=금경·금광경·금강(명)경도량·금광명경법석, IWD=인왕도량=인왕((경)백좌)·백(고)좌(인왕(경))도량·백좌인왕·백좌회·백좌법석·강(독)인왕(반야)경·인왕법회, BJD=불경도량=불정(심)불정오성도량·불정독경, BYG=반야경도량=반야(경)도량·독반야경·반야법석, JSD=제석도량=천제석·제석도량·제석제, RHJ=나한제=(오백)나한제, MSH=문수회=문수도량·문수회, SJD=신중도량=천병신중·화엄신중도량을 합친 횡수. 10회 이하의 의례 및 장소는 기타로 분류. 이궁(의 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만 이궁으로, 그 외는 정궁으로 분류함. 연등회와 팔관회 개최 장소는 정궁 기타로 분류함. 지면상의 이유로, 불교행사의 명칭은 축약한 영문 머리글자로 표기함. Table 2 및 Table 3도 동일.

(원)을 저주하는 까닭이다.’ 고 한 위득유와 노진의의 말을 들은 흥다가가 이 사실을 원에 보고하여 담선법회가 중지된 사실이 있다.¹⁴⁾ 원에 입조한 충렬왕이 이를 해명한 후에야 담선법회를 재개할 수 있었다.¹⁵⁾ 일부 불교행사가 원 간섭기에 개최되지 않았던 것은 원이 중지시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 개최되지 않았던 신중도량, 금강경도량 등이 원의 간섭을 벗어난 공민왕대에 이르러 재개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장경도량은 오히려 원 간섭기인 충렬왕 때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관련 기록을 보면, 원에서 관리를 통해 화폐, 금박, 비단, 향 등을 고려에 보내어 장경을

14) 『Goryeosajeolyo』 卷之20 忠烈王2·『Goryeosa』 卷第28 世家28 忠烈王1, 四(1278)年三月 韋得儒 盧進義 言於茶丘曰 國家談禪法會 所以咀上國 茶丘 遣人報中書省.

15) 『Goryeosa』 卷第28 世家28 忠烈王1, 四(1278)年六月戊寅王 上書都堂 辦方慶事 及談禪法會; 卷第29 世家29 忠烈王2, 六(1280)年三月戊辰 中書省許 復設談禪法會.

제작하고 읽게 하였으며,¹⁶⁾ 제작된 장경을 사원에 바치고 원 황실의 복을 빌기도 하였다.¹⁷⁾ 장경도량이 원 간섭기 집중 개최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시대 불교행사의 개최 여부는 특정 시기의 대내외적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정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의 불교행사가 단순한 종교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고려라는 국가가 지닌 정체성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불교행사의 개최 규모와 특성

불교행사 개최 장소는 크게 궁궐 안과 궁궐 밖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궐 밖의 경우는 대부분 사원에서 진행되었다(Table 2 참조). 궁궐에서 치러지던 연등회는 왕륜사나 봉은사, 팔관회는 법왕사가 의례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궁궐과 사원이 불교행사의 진행 장소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불교행사와 구별된다.

강경·공덕천·관정·무능승·불정·약사·운우도량 및 보살계 등은 궁궐에서만 개최된 반면, 마리지천·문두루도량은 사원에서만 열렸다. 금강경·금강명경·기우도량은 대부분 궁궐에서 개최된 반면, 경찬·진병도량 및 축수제는 궁궐에서 개최된 1회 이외에는 모두 사원에서 열렸다. 인왕도량은 개최 장소가 미상인 23회를 포함하여 전체 122회가 개최되었다. 궁중에 위치한 법운사 4회, 법왕사 3회, 민천사 1회 이외에 모두 궁궐에서 열렸다. 인왕도량과 함께 반승이 병행되기도 했으며, 반승 참여 인원은 최대 3만 명에 이른다. 휘신도량은 내전 2회를 제외한 13회가, 나한제는 장소가 미상인 1회와 상춘정 1회를 제외한 28회가, 설재 역시 궁궐 내 상춘정 1회를 제외한 27회가 사원에서 치러졌다. 문수회도 11회 가운데 7회가 사원에서 열렸는데, 연복사가 5회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궁궐이나 사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는 불교행사의 개최 목적이나 배경과 개최 장소가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궁궐과 사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살계는 궁궐에서만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복적 측면이 강한 불교행사로서, 그 대상이 비록 국왕이나 왕실 관련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궁궐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마리지천도량의 경우 9회가 모두 묘통사에서 진행되었다. 마리지천도량은 불교의 호법신인 마리지천을 향해 배설되는 것으로서, 병재(兵災)를 예방할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묘통사가 마리지천을 모시던 사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두루도량 역시 사원에서만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신라와 고려 시대에 국가적 재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열었다. 신라시대 경주의 사천왕사에서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여 사원에서 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록 중 불교행사의 개최 기간이나 참여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불교행사는 종류나 개최 장소와 관계없이 3일에서 7일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Table 3 참조). 다만, 극심한 가뭄이 들자 상춘정 및 여러 사원에서 3주 동안 소재도량을 배설하였으며,¹⁹⁾ 몽고군을 물리치기 위해 삼랑성에 가뭄을 짓고 4개월 동안 불정도량을 거행하기도 하였다.²⁰⁾ 1092년 6월에는 왕태후가 백주 건불사에서 천태종예참법을 약 1만일 동안 개최하도록 하였다.²¹⁾ 이 행사가 실제로 1만일 즉, 27년 이상 실행되었다면, 고려시대 불교행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사례에 해당한다.

불교행사의 참여 인원은 개최 장소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에 행해진 불교행사의 개최 장소와 기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참여 인원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여 인원은 수 명에서 수만 명까지 다양하며, 궁궐에서 진행된 경우는 3만 명이다. 장소를 불문할 경우 10만 명에게 반승했다는²²⁾ 것이 기록상의 최대 참여 인원이지만,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반승에 참여하였던 총인원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별 개최 일 수나 참가 인원 사이의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3일에서 7일 정도 개최된 대부분의 불교행사와는 달리, 심한 가뭄으로 3주간 개최된 소재도량, 그리고 몽고군을 물리치기 위해 4개월 동안 개최된 불정도량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개최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 개최 기간이 달라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6) 『Goryeosa』 卷第31 世家31 忠烈王4, 二十一(1295)年閏(4)月己酉, 二十六(1300)年十二月甲午; 卷第32 世家32 忠烈王5, 二十九(1303)年二月丁亥; 卷第33 世家33 忠宣王1, 二(1310)年六月壬子 등.

17) 『Goryeosa』 卷第122 列傳35 宦者 方臣祐.

18) 불정도량이나 나한제 등의 불교행사가 특정 시기 이후로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원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이와 관련된 불교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 새로운 불교 전래로 인한 기존 불교행사의 폐지나 종교적 성향의 변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도교 의례인 영보도량이 원 간섭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전체 11회 가운데 8회가 장안전(중광전)에서 개최되었다.

19) 『Goryeosa』 卷第14 世家14 睿宗3, 十六年五月甲寅 設消災道場 於賞春亭 及 日月 王輪 高峯 極樂寺 三七日. 소재도량 9일 뒤 홍국사에서 5일간, 윤5월 정묘일에 건덕전, 사원, 신사에서 기우. 4일 뒤 다시 기우. 그 4일 뒤 ‘천사가 순조롭지 못해 가뭄이 재앙이 되었다’는 제를 내렸으며, 다음날 순복전, 산호정, 사찰, 6일 뒤 법운사에서 비를 빌고, 6월 을해일에 다시 기우. 다음 날 백관에게 명하여 나한제를 열고 기우. 6일 뒤 큰 비가 옴.

20) 『Goryeosa』 卷第26 世家26 元宗2, 五(1264)年五月癸卯; 卷第123 列傳36 嬖幸1 白勝賢, 元宗五(1264)年.

21) 『Goryeosa』 卷第10 世家10 宣宗, 九(1092)年六月壬申 王太后 設天台宗禮懺法 于白州見佛寺 約一萬日.

22) 『Goryeosa』 卷第24 世家4 顯宗1, 九(1018)年五月戊寅 飯僧十萬.

이와 더불어 송충이 심하게 발생하자 관정·문두루·보성도량을 동시에 차리고, 지방 여러 곳에 신중도량을 배설하였으며,²³⁾ 왜군이 침입하자 전국의 사원 151개소에 진병법석을 베풀기도 하였다.²⁴⁾ 여러 종류의 불교행사를 동시에 치르거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불교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었던 것이다. 불교행사의 종류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을 보다 널리 알려 피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종류와 장소에서 불교행사를 개최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이다.

2.3 불교행사의 절차와 형태

고려시대 불교행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개최 장소의 공간 구성과 각종 시설의 배치, 그리고 행사의 절차와 공간 이용 방식일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의례 연구의 주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고려사』이다. 단편적이지만 1,200회 이상의 불교행사 개최 기록과 함께 국가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행사는 궁궐과 사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궁궐과 사원에서 진행되던 불교행사의 절차를 개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고려사』 예지 가례잡의 「중동팔관회의」에 의하면 팔관회는, 소회일 행사와 대회일 행사로 나뉜다. 소회일 행사는 난가출궁(鑾駕出宮) 의식과 의봉루(新봉루)에서 치러지는 좌전수하(座殿受賀) 의식으로 구성된다.

팔관회 때 국왕의 난가출궁 의식은 선인전(선정전)-대관전(건덕전)-전문(창덕문)-합문-의봉문-구정-태정문-대관전 순서로 진행되며, 장소에 따라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Figure 2 참조). 이 가운데 주요 행사가 치러지는 곳은 대관전(건덕전)과 의봉루(新봉루) 및 구정이었다.

특히, 구정을 면한 의봉문 동편 전각에서 진행되는 좌전수하 의식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과 국왕 및 관료들의 위치와 행사 절차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Figure 1이다. 좌전수하 의식은 의례에서 정한 위치를 오가며, 태자 이하 종실들과 중앙의 모든 관리들의 조하와 지방관원들이 파견한 지표원들의 봉표(奉表) 조하가 진행되었다.

좌전수하 의식 후에는 범왕사 행향이 행해졌으며, 백희(百戲)와 음악이 공연되고 술과 음식이 베풀어졌다. 대회일 행사는 난가출궁 의식, 외국인 조하 의식 및 연회, 연회의 3부로 진행된다. 연회는, 국왕에게 차, 꽃, 술을 올리면 이에 대한 답으로 왕이 차, 술, 꽃 등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치워진다.

팔관회가 궁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연등회의 주요 행사는 궁궐과 사원 두 곳에서 치러졌다.

『고려사』 예지 가례잡의 「상원연등회의」에 의하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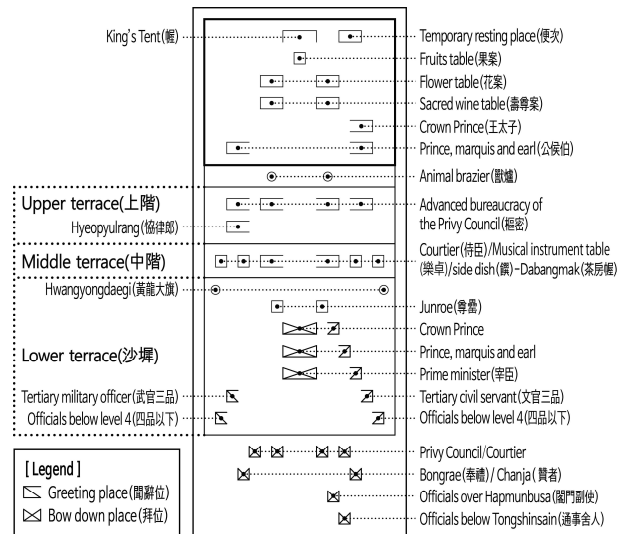


Figure 1. Layout Diagram of the Palgwanhoe

등회 역시 소회일 행사와 대회일 행사로 나뉘어 이들 동안 진행된다. 소회일 행사는 강안전(중광전)에서 치러지는 편전의식과 봉은사 조진배알(祖眞拜謁) 행사로 구성된다. 소회일 행사에는 백희가 공연되었으며, 조진배알은 봉은사 진전으로 행차하여 태조 진영에 작헌하는 의례였다. 즉 소회일 행사는, 강안전(중광전)-전문-태정문-승평문-봉은사 삼문-진전 대문-진전 문밖-진전 안-진전 문밖-진전 대문-봉은사 삼문-환궁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었다(Figure 2 참조).

대회일 행사는 강안전(중광전) 연회가 중심이었으며, 편전의식, 진설 및 정좌, 연회의 3부로 진행되었다. 연회는, 국왕에게 차, 술, 꽃을 올리면, 이에 대한 답으로 차, 술, 꽃 등을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술과 음식이 베풀어졌다.²⁵⁾

연등회 때는 왕이 사용하는 장막, 임시휴게소, 과일상, 꽃탁자, 술상, 화로 등은 팔관회와 같이 설치되지만, 팔관회 때 3단으로 설치하였던 부계는 1단만 설치되었다. 이것은, 대외적 행사였던 팔관회와 대내적 행사였던 연등회의 개최 장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즉 연등회가 열리는 강안전(중광전)이 팔관회가 진행된 구정보다 공간이 협소했던 것이다. 반면, 팔관회 때는 설치하지 않는 채산(菜山)과 등룡(燈籠)을 연등회 행사가 진행되는 강안전(중광전) 마당과 부계의 상하좌우에 설치하였는데, 이는 국왕과 신하가 함께 즐긴다는 연등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월 보름에 연등회가 개최되면, 궁궐 안팎은 물론 거리에도 등불을 켜는 뿐만 아니라,²⁶⁾ 모든 사원에도 극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등을 밝히고, 국왕과 비빈들이 모두 가서 구경을 하였으며, 온 나라의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23) 『Goryeosa』 卷第54 志8 五行2 木, 肅宗五(1100)年五月.

24) 『Goryeosa』 卷第135 列傳48 辛禎3, 九(1383)年九月 大設鎮兵法席 于中外佛宇 共一百五十一所.

25) 연등회 및 팔관회 의례의 절차와 실태는, An, 1999, pp. 61-85 및 pp.164-193 참조.

26) 『Goryeosa』 卷第10 世家10 宣宗, 四(1087)年九月戊寅 設燃燈道場 于興國寺 又點燈 于宮城內外街衢.

도로를 가득 메웠다.²⁸⁾ 뿐만 아니라, 석가여래가 탄생한 날이라고 하여 4월 8일에도 연등회가 열렸는데,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장대를 세워 등불을 걸었으며, 부호들은 채색한 커다란 등대(燈台)를 세웠는데, 층층이 달린 수많은 등불은 마치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과 같아서 도성 사람들이 밤새도록 구경하였다.²⁹⁾ 이처럼 연등회가 거행되면, 가난한 개경의 주민들은 구걸을 해서라도 등불을 밝히고자 하였으며,³⁰⁾ 국왕이 연등을 한 후 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개경의 중심가를 통과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다.³¹⁾

한편 공민왕은, 1364년과 1366년 4월에 연등을 하고 아이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궁전 뜰에서 호기(呼旗) 놀이를 구경하고 옷감을 하사하였는데, 호기는, 아이들이 연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일 전부터 막대기에 종이를 오려붙여 기(旗)를 만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복을 만들어 가지고 도성의 거리를 때를 지어 왜치고 돌아다니면서 쌀과 옷감을 얻던 것을 말한다.³²⁾

개경의 거리마다, 집집마다 등불로 밝혀지고, 국왕으로부터 일반민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교 행사에 참여하고 밤을 새워가며 이를 구경하기 위해 길거리를 시끌벅적하게 가득 메운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일종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불교 행사가 개경 전체에서 개최되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러한 불교 행사가 열리는 동안만큼은 사원을 비롯하여 궁궐과 관청은 물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간으로 변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궁궐 내 불교행사 개최 횟수와 장소

27) 우성훈, 이상해, 「고려정궁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5권 3호 통권 4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년 8월, p.71의 도면을 이용하여 제작성함.

28) 『高麗圖經』 卷第17 祠宇, …又俗喜浮屠 二月望日 諸僧寺 然燭極繁侈 王與妃嬪 皆往觀之 國人喧闐道路.

29) 『慵齋叢話』 卷之2, 四月八日燃燈 俗言釋迦如來誕生辰也 春時兒童剪紙爲旗 剝魚皮爲鼓 爭聚爲羣 巡闐巷乞燃燈之具 名曰呼旗 至是日家家樹竿懸燈 豪富者大張彩棚 層層萬盞 如星排碧落 都人終夜遊觀 無賴少年或仰而彈之以爲樂 今者不崇佛教 雖或設之不如昔之盛也.

30) 『Goryeosa』 卷第132 列傳45 叛逆6 辛旽, 恭愍王十五(1366)年 (辛)旽 以四月八日 大燃燈于其第 京城爭效之 貧戶至乞丐以辦.

31) 『Goryeosa』 卷第106 列傳19 朴瑜, 朴瑜 忠烈朝拜大府卿 嘗云…我國本男少女多…請 許大小臣僚 娶庶妻 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婦女聞之 莫不怨懼 會燈夕 瑜 扈駕行 有一嫗指之曰…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間 紅指如束…

32) 『Goryeosa』 卷第40 世家40 恭愍王3, 十三(1364)年夏四月辛丑 燃燈 觀呼旗戲於殿庭 賜布 國俗 以四月八日 是釈伽生日 家家燃燈前期數旬 群童剪紙 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爲其費 謂之呼旗; 『Goryeosajeolyo』 卷之28 恭愍王3 · 『Goryeosa』 卷第41 世家41 恭愍王4, 十五(1366)年夏四月 王觀呼旗童戲於殿庭 賜布百匹 國俗 以四月八日 是釈伽生日 家家燃燈 群童剪紙 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爲其費 謂之呼旗; 『慵齋叢話』 卷之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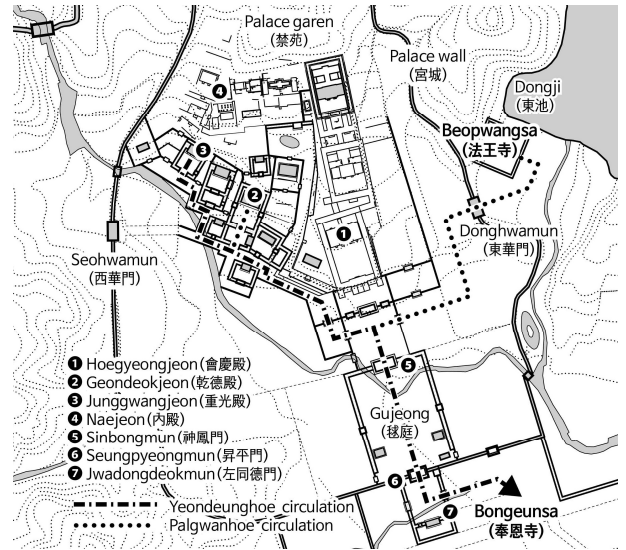


Figure 2. Circulation of the Yeondeunghoe & Palgwanhoe²⁷⁾

고려시대 불교행사가 열린 장소를 살펴보면, 1,232회 가운데 정궁³³⁾이 719회, 사원이 228회, 이궁이 118회, 관청이 6회, 기타 25회³⁴⁾,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136회로 집계된다. 3분의 1 이상이 정궁에서, 이궁을 합하면 3분의 2 이상이 궁궐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및 Table 3 참조).³⁵⁾

궁궐에서 개최된 불교행사는 내전이 가장 많은 98회로 집계되는데,³⁶⁾ 이는 내전 영역에 위치한 여러 전각을 구분하지 않고 내전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전을 제외하면, 회경전(선경전) 97회, 건덕전(대관전) 64회, 문덕전(수문전) 57회, 중광전(강안전) 24회의 빈도로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다.³⁷⁾

내전에서는 기록을 위해 도량과 오교법석, 안개와 홍수 때는 소재도량, 성변 때는 금강경·기양·소재도량, 화재 때는 인왕도량, 천변 때에는 불정·소재도량이 개최되었으

33) 조선시대 만월대로 불렸으며, 대궐, 본궐, 대내 등 다양한 명칭이 기록에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1997)의 견해에 따라 정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34) 개최 횟수가 적거나 장소의 특성을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35)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이 궁궐에서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포함하면 80% 정도이다. 이는 『고려사』의 사료적 특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려시대의 불교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6) 강화도에서 환궁한 후 내전에서 개최된 18회의 불교행사는 정궁이 아닌 국왕이 거처하던 곳(이궁)의 내전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궁의 내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정궁의 내전으로 집계하였다.

37) 괄호 내는 바뀐 건물 명칭이다. 이자겸의 난으로 불탄 정궁을 복구한 후, 인종 때인 1138년 5월에 건물의 명칭을 바꾸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것만 살펴보면, 회경전은 선경전, 중광전은 강안전, 건덕전은 대관전, 문덕전은 수문전, 장령전은 봉원전, 승천문은 통가문, 신봉문은 의봉문으로 개칭되었다(『Goryeosa』 卷第16 世家16 仁宗2, 十六(1138)年五月庚戌).

Table 2. The Places and the Numbers of the Held of Buddhist Rituals³⁸⁾

Name of King	Main Palace						Royal Villa				BT	GO	Other	No Place	Total (Number of times)
	HGJ	NJ	GDJ	MDJ	JGJ	Other	SCG	YGG	SNG	Other					
Taejo	2	2	.	.	2	6
Haejong
Jeongjong	1	.	.	.	1
Gwangjong
Gyeongjong
Seongjong	1	1
Mokjong	3	3
Hyeonjong	1	1	.	.	.	6	3	11
Deokjong	3	3	.	.	.	6
Jeongjong	2	.	1	3	.	12	2	.	.	.	20
Moonjong	9	5	6	3	.	25	22	.	.	1	71
Soonjong
Seonjong	9	.	8	3	.	7	.	.	.	1	7	.	.	2	37
Heonjong	1	1
Sookjong	9	.	6	7	.	21	.	.	.	2	21	.	2	5	73
Yejong	13	2	15	17	.	32	.	.	.	7	22	1	.	6	115
Injong	8	1	9	3	.	8	22	9	.	9	9	2	.	4	84
Uijong	10	5	6	9	.	50	3	.	.	1	21	1	1	5	112
Myeongjong	3	14	9	.	1	30	23	.	.	1	25	1	1	8	116
Shinjong	4	.	.	2	.	7	3	.	.	1	17
Huijong	1	1	.	.	.	7	5	1	.	1	16
Gangjong	1	4	.	.	.	3	8
Gojong	27	27	2	10	.	56	.	1	.	.	9	.	2	64	198
Wonjong	.	19	2	.	.	27	.	.	.	6	5	.	1	14	74
Chungryeolwang	4	33	.	.	5	10	26	.	1	12	91
Chungseonwang	4	6	.	5	4	.	7	.	1	2	29
Chungsookwang	.	1	.	.	.	5	.	4	.	1	1	.	.	.	12
Chunghaewang	1	1	.	1	.	3
Chungmokwang	.	7	.	.	2	5	4	.	1	.	19
Chungjeongwang	1	1
Gongminwang	.	11	.	.	13	17	.	1	.	.	19	.	11	4	76
Shinwoo	9	.	.	1	.	7	.	3	.	20
Shinchang	1	1
Gongyangwang	2	.	.	.	1	6	.	.	1	10
Total(Number of times)	97	98	64	57	24	379	48	21	10	39	228	6	25	136	1,232

며, 반승, 보살계, 문수회, 우란분재, 담론법석, 설선 및 궁덕전·금광명경·기우·제석·신중·운우·복제천호국·승법문·존승·지풍·휘신·기복·기은·연생경도량을 포함 27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소재도량이 27회로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13회의 인왕도량, 8회의 보살계와 불정도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회경전에서는 기우와 화재 억제를 위해 반야도량, 성변이 나타나자 소재도량, 진병을 위해 무능승·인왕도량, 천변 발생에는 소재·금광명경도량, 황충과 송충이 발생하자 각각 반야 및 불정도량을 배설하였으며, 반승, 경찬회, 도량, 관정·장경·사천왕도량 등 12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39회의 인왕도량과 34회의 소재도량이 주로 개최되었다.

건덕전에서는 기우를 위해 금강경·금광명경·소재도량,

천변·왕비 질병으로 소재도량, 원종의 순탄한 원나라 인조를 위해 인왕도량이 개최되었으며, 보살계, 도량, 제야·반야·화엄경·능엄도량 등 10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23회의 보살계와 17회의 소재도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덕전에서는 기우를 위해 금강경·금광명경·인왕도량, 진병을 위해 무능승·약사도량, 천변 때 제석도량이 개최되었으며, 보살계, 백일재, 도량, 불사, 반야경·불정·소재·공작명왕·보성·자비참도량 등 17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불정도량이 15회, 제석도량이 12회로 다른 것에 비해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중광전에서는 가뭄 때 인왕도량, 성변과 지진 때 소재도량, 진병을 위한 진병도량이 개최되었으며, 보살계, 기우·운우·궁덕전·관정·장경·대세도량 등 10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명종 때 1회 이외에는 모두 충렬왕 이후에 개최된 것으로, 7회의 인왕도량과 5회의 소재도량이 자주 열린 불교행사이다.

이공의 경우, 수창궁 명인전이 37회, 중화전이 11회로

38) 불교행사의 개최 장소는 지면상의 이유로, HGJ=회경전, NJ=내전, GDJ=건덕전, MDJ=문덕전, JGJ=중광전, SCG=수창궁, YGG=연경궁, SNG=수녕궁, BT=불교 사원, GO=관청과 같이 축약한 영문 머리글자로 표기함. Table 3도 동일.

총 48회 개최되었다. 도량, 반야·불정·소재·인왕·장경·제석·대세도량, 보살계, 불골, 불사 등 11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명인전에서는 보살계가 7회, 불정·소재·인왕도량이 각 6회, 제석도량이 5회, 장경도량이 4회로 다른 도량에 비해 자주 개최되었고, 중화전에서는 보살계가 5회로 가장 많으며, 2회가 확인되는 반야경도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연경궁의 경우 천복전에서 8회가 개최되었는데, 불정도량 3회, 소재도량이 2회, 금강경·장경·제석도량이 각 1회이다. 나머지 13회는 연경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반승이 5회로 가장 많고, 소재·장경도량이 각각 2회씩 개최되었다. 이 외에 인왕도량, 왜적기양법석, 반승, 불골, 만승회 등이 열렸다. 수녕궁의 경우 10회 중 9회의 불교행사가 충렬왕 이후에 개최되었으며, 금강경·인왕·장경도량, 반승, 설선 등 5종의 불교행사가 열렸다. 반승이 5회로 가장 자주 열렸으며, 최대 인원은 1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Table 2 및 Table 3 참조).

이상의 내용에서 불교행사의 개최 장소에 대해 검토해보면 일부 특이한 사항이 확인된다.

먼저, 1126년 5월 연경궁으로 이어한 인종이 같은 해 6월에 천복전에서 소재도량을 개최한 이래,³⁹⁾ 한동안 이궁을 중심으로 불교행사가 진행되었다. 인종 이전에는 남경이나 서경의 이궁 이외에서 불교행사가 개최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일정기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궁이 아닌 개경 내 이궁에서 불교행사가 주로 개최된 것은, 이궁에서 불교행사를 열어야만 했던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1126년 2월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발생한 화재로 고려 정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즉, 정궁이 복구될 때까지 이궁에서 불교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회경전, 대관전, 문덕전, 장령전 등이 충렬왕대 이후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명종 때 대세도량이 1회 열렸을 뿐이던 중광전(강안전)에서⁴¹⁾ 집중적으로 불교행사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 중광전에서 개최된 24회 가운데 23회의 불교행사가 충렬왕 이후의 기록인 것이다(Table 2 참조). 특히, 충렬왕 이후 개최된 인왕도량의 16회 중 7회, 소재도량의 30회 중 5회가 중광전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국가나 국왕의 안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던 별자리의 이상⁴²⁾이나 지진⁴³⁾을 물리치기 위한 소재도량과 인왕도량⁴⁴⁾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불

교행사는 주로 회경전이나 건덕전과 같은 정전에서 개최되었으며, 충렬왕 이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불교행사가 중광전에서 개최된 사례는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불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전이 아닌 국왕의 정침 혹은 편전⁴⁵⁾으로 기능하던 중광전에서 개최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몽고군을 피해 옮겨갔던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회경전과 건덕전, 그리고 문덕전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몽고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던 회경전, 건덕전, 문덕전 등이 이후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몽항쟁 이후 고려의 정궁은 중광전과 그 일대만 복구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재도량이나 인왕도량조차 중광전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개경 환도 후 정궁의 중심 건물은 중광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궁의 정전에서 진행되던 중요 불교행사가 중광전을 그 대체 장소로 하여 개최되었던 것이다. 비록 중심 건물은 바뀌었으나 정궁이 지녔던 위상이 원 간섭기에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부분적으로 복구된 정궁을 대신하여 이궁이 국왕들의 주요 거처가 되었으며, 연등회나 팔관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행사 또한 주로 이궁에서 열리게 되었다. 충렬왕 이후 연경궁이나 수녕궁에서 불교행사 개최 횟수가 증가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⁴⁶⁾

4. 궁궐 내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의 관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확인되는 1,232회의 불교행사 가운데, 연등회, 팔관회, 반승, 보살계, 기우, 운우, 낙성, 상원도량과 같이 명칭이나 기록을 통해 개최 목적이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35종 690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이 가운데 연등회와 팔관회를 제외하면 궁궐이 190건, 사원이 125건, 관청이 3건, 기타 장소가 22건, 장소미상이 54건으로 집계된다.

궁궐에서 개최된 190건의 행사는, 내전 43건, 건덕전 30건, 회경전 12건, 문덕전 12건, 구정 10건, 강안전 8건, 장령전 3건, 연천전 2건 및 정궁으로만 기록된 것 22건이며, 이궁은 수창궁 명인전 11건, 수창궁 중화전 7건, 연경궁 8건, 수녕궁 6건, 기타 16건으로 집계된다.

한편 소재도량은, 전체 160건 가운데 천변 11건, 기상이변과 성변 각 6건, 질병 2건, 지진 1건, 인왕도량은 전체 122건 가운데 진병 4건, 천변 3건, 기우·성변·입조 각 2건, 재앙 1건, 불정도량은 전체 40건 가운데 천변, 진병, 충해 각 1건, 금강경도량은 전체 14건 가운데 기우 3건, 성변·천변 각 1건, 금광명경도량은 전체 14건 가운

設仁王道場 於康安殿七日 以禳天變.

45) 『Goryeosa』 卷第13 世家13 睿宗2, 四(1109)年八月丁亥 王以中秋 率文臣翫月 於重光便殿 御製詠月詩.

46) 정궁이 본격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것은, 원 간섭기 이후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정궁에서 진행할 국가적 행사가 축소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39) 『Goryeosa』 卷第15 世家15 仁宗1, 四(1126)年五月丙寅朔移御延慶宮…六月甲辰 設消災道場 于天福殿.

40) 『Goryeosajeolyo』 卷之9 仁宗恭孝大王1, 四(1126)年春二月辛酉.

41) 『Goryeosa』 卷第20 世家20 明宗2 十一(1181)年六月辛亥 設大歲道場 于明仁康安二殿.

42) 『Goryeosa』 卷第38 世家38 恭愍王1, 二(1353)年十一月 設消災道場 于康安殿 以禳星變.

43) 『Goryeosa』 卷第38 世家38 恭愍王1, 四(1355)年秋七月丁亥 設消災道場 于康安殿 以禳地震.

44) 『Goryeosa』 卷第44 世家44 恭愍王7, 二十二(1373)年夏四月

Table 3. The Held Places and the Numbers of the Buddhist Rituals / The maximum held period(days)

Buddhist Rituals	Main Palace						Royal Villa				BT	GO	Other	No Place	Total (Number of times)
	NJ	HGJ	GDJ	MDJ	JGJ	Other	SCG	YGG	SNG	Other					
YDH	·	·	·	·	·	171	·	·	·	·	·	·	·	·	171
PGH	·	·	·	·	·	119	·	·	·	·	·	·	·	·	119
SJD	27/7	34/7	17/6	5/4	5/1	19	6/5	4/1	·	6	18	1	1	17	160
IWD	13/3	39/7	6/3	3/1	7/1	10	6/10	1/1	1/1	5	8	·	·	23	122
BSG	8/1	·	23/1	2/1	1/1	4	12/1	·	·	3	·	·	·	11	64
JGD	·	8/7	1/3	·	3/1	4	4/7	3/7	1/1	·	8	·	·	9	41
BJD	8/1	2/7	·	15/7	·	·	7/7	3/1	·	2	·	·	1	2	40
SJD	4/1	·	·	·	·	4	·	·	·	·	3	·	1	27	39
RHJ	·	·	·	·	·	1	·	·	·	·	28	·	·	1	30
JSD	1/1	·	·	12/7	·	1	6/3	·	·	1	2	·	·	·	23
BYG	·	3/14	4/1	1/1	·	1	2/1	·	·	4	2	3	1	·	21
GGD	2/1	·	5/7	2/5	·	·	·	1/1	·	2	1	·	·	1	14
GMD	1/1	2/1	3/21	1/1	·	2	·	·	1/1	1	1	·	·	2	14
GCD	4/1	·	·	·	2/1	2	·	·	·	·	·	·	·	5	13
HGD	·	·	2/5	·	·	1	·	·	·	·	7	·	·	2	12
MSH	1/1	·	·	·	·	1	·	·	·	·	7	·	1	1	11
Other	29	9	3	16	6	39	5	9	7	15	143	2	20	35	338
Total(Number of times)	98	97	64	57	24	379	48	21	10	39	228	6	25	136	1,232

데 기우·천변 각 3건, 성변·기상이변 각 1건, 장경도량은 전체 41건 가운데 낙성 1건, 기복 5건, 화엄경도량은 전체 12건 가운데 충해·기상이변·기복·명복·기타 각 1건, 공덕천도량은 전체 13건 가운데 기우 1건, 신중도량은 전체 39건 가운데 충해 1건, 제석도량은 전체 23건 가운데 천변이 1건, 관정도량은 전체 6건 가운데 진병·충해가 각 1건 씩 확인된다.

천변의 경우에는 사원이나 궁궐에서 불교행사가 열렸는데, 문덕전에서는 제석도량, 건덕전에서는 소재도량, 수창궁 명인전에서는 도량이나 인왕도량이 개최되었다. 1179년 7월에 천변이 발생하자 명인전에서 인왕도량을 10여 일 간 배설한 것이 개최 기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며 참여 인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전에서는 소재·불정·금광명경도량, 회경전에서는 금광명경·소재도량, 금중 또한 소재도량이 열렸다.

성변의 경우 외원에서 기양도량이 열린 것 이외에 사원에서 불교행사가 진행된 경우는 없으며, 중광전·회경전에서는 소재도량, 수창궁 명인전에서는 인왕도량, 내전에서는 소재·금강경·기양도량, 그리고 금광명경도량이 본궐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최 기간이나 참여 인원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뭄, 태풍, 우박, 소나기, 홍수, 무지개 발생과 같은 기상이변의 경우에도 궁궐이나 사원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불교행사가 열렸다. 궁궐의 경우 기우를 위해 문덕전에서는 금강경·금광명경·백고좌인왕경도량이, 건덕전에서는 금강경·금광명경도량이 각각 7일간 진행되었다. 임해원에서는 용왕도량, 회경전에서는 반야도량, 금명전에서는 공덕천도량이 개최되었으며, 수창궁 중화전에서 휘 무지개가 발생하자 7일간 도량을 열기도 하였다. 안개가 발생하자 건덕전에서 소재도량이 개최되었으며, 내전에서는 안개 및 홍수 발생으로 소재도량이 열렸고, 중광전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 7일간 인왕도량을, 수녕궁에

서는 우박이 내리자 금광명경도량이 개최되었다.

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 장소에서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다. 궁궐에서는 회경전에서 열렸는데, 불정도량의 경우 7일간, 반야도량의 경우 14일간 개최되었다.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진병의 경우 또한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궁궐에서는 회경전에서 인왕도량이, 중광전에서 5일 동안 진병도량이, 문덕전에서 약사·무능승도량이, 연경궁에서 기양도량이, 남산궁에서 도량이, 서경 상안전에서 관정도량이, 삼랑성 가궐에서 4개월 동안 불정도량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궁을 비롯하여 여러 곳의 이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불교행사 가운데, 소재도량과 인왕도량은 회경전에서, 보살계는 건덕전에서, 불정도량과 제석도량은 문덕전에서 개최된 빈도가 다른 전각에 비해 높다(Table 3 참조).

소재도량의 개최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천변 혹은 성변⁴⁷⁾에 대해 고려에서는 국가적인 반역이 일어나거나 국왕이 사망할 징조로 해석하고 있었고, 홍수,⁴⁸⁾ 지진,⁴⁹⁾ 벼락, 바람,⁵⁰⁾ 안개의 발생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 역시, 국가 통치를 위해 예방하고 억제하고자 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해성이 출현하거나 별자리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천변 혹은 성변⁵¹⁾이 있을 경우

47) 『Goryeosa』 卷第48 志2 天文2 月五星凌犯及星變, 明宗九(1179)年九月辛巳.

48) 『Goryeosa』 卷第37 世家37 忠穆王, 四(1348)年六月己巳 以雨灾 設消灾法席 于內殿.

49) 『Goryeosa』 卷第38 世家38 恭愍王1, 四(1355)年秋七月丁亥 設消灾道場 于康安殿 以禳地震.

50) 『Goryeosa』 卷第54 志8 五行2 木, 辛禡元(1375)年十月己巳 雷雨大風 行消灾道場 於外院寺.

51) 『Goryeosa』 卷第22 世家22 高宗1, 九(1222)年秋七月甲申 以彗見設消灾道場 于宣慶殿 十四(1227)年八月 親設消灾道場 于宣慶殿 以禳天變 九月辛丑 親設消灾道場 于宣慶殿 以禳天變 十

에는 회경전에서, 그리고 성변⁵²⁾이나 안개가 발생⁵³⁾한 경우에는 건덕전에서 소재도량을 개최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런데, 인종 21(1143)년 6월, 왕비의 질병 치료를 위해 건덕전에 소재도량을 배설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⁴⁾ 회경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례이다.

인왕도량 역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적병을 물리치기 위해 회경전에서 열었던⁵⁵⁾ 반면, 무신집권자였던 김준은 원종이 원나라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 건덕전에⁵⁶⁾ 배설하였다. 보살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궁에서 개최되었던 38회의 보살계 가운데 23회가 건덕전에서 진행되었던 반면, 회경전에서 실행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Table 3 참조). 국왕의 친조를 돕기 위해 건덕전에 배설되었던 인왕도량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개최되는⁵⁷⁾ 호국적 불교행사(Hong, 1994; Heo, 1997)가 아니었으며, 보살계는, 그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왕이 국사나 왕사를 궁궐로 초빙하여 계를 받던 행사였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회경전과 건덕전에서 소재도량이나 인왕도량이 거행되었으며, 왕비의 질병 치료나 보살계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국왕이나 왕실의 인물과 관련된 것은 건덕전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경전은, 송나라 황제의 조서를 받는 등, 고려 정궁 내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행사가 거행되던 제1정전이었으며, 송나라 이외 국가의 사신 접견과 문무백관의 하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궁중 의식은 제2정전인 건덕전에서 이루어졌다. 회경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한 상징적 정전이었던 반면, 건덕전은 통상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상용 정전이었던(Kim, 1997).⁵⁸⁾ 건덕전은 5칸으로 회경전보다 작다는 기록을⁵⁹⁾ 통해서, 개최되는 의례의 격식은 물론 건축적인 격식 또한 회경전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경전과 건덕전에서 개최되었던 불교행사는, 두 건물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정도량은 전체 40회 가운데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2회 이외에는 모두 궁궐에서 개최되었다. 정궁의 25회 가운데 문덕전에서 15회, 내전에서 8회, 이궁에서 13회 열렸다.

불정도량은 재액을 없애고 복을 비는 의식으로서(Hong, 1994) 국왕의 장수와 복을 빌기 위해 주로 문덕전에서 개최되었다.⁶⁰⁾ 그런데, 건덕전에서도 개최되지 않았던 불정도량이, 제1정전인 회경전에서 2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Table 3 참조). 1회는 개최 배경이나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1회는 송충이 발생하여 솔잎을 갹아 먹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 거행된 것이었다.⁶¹⁾ 송충으로 인해 소나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전쟁이 발생하거나 정치가 문란해지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⁶²⁾

회경전과 건덕전이 사신의 영접 등 대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주로 국왕의 학문소로 사용되던 문덕전에서는, 경전을 강독하거나 복시(覆試)가 치러지기도 하고, 정치를 듣거나 죄인을 처벌하는 등 주로 대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왕 개인의 기복을 위해 문덕전에서 실행되던 불정도량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정전이었던 회경전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경전과 건덕전에 이어, 회경전과 문덕전 역시, 그들이 지닌 기능과 역할, 그리고 격식의 차이가 개최되는 불교행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1180년 3월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자 내전에서 불정도량을 7일 동안 개최한 사실이⁶³⁾ 주목된다. 이와 함께 1178년에는 금나라 군사가 의주 관내에 와서 주둔하는⁶⁴⁾ 군사적 위기 상황 때, 그리고 1179년에는 달이 태백성을 범하자⁶⁵⁾ 수창궁 명인전에서 인왕도량을 배설하기도 하였다.⁶⁶⁾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군사적 위기나,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고 달이 태백성을 범하는 등의 천변을 물리치기 위한 불교행사는 제1정전인 회경전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7(1230)年夏四甲戌 以星變親設消災道場 于宣慶殿 以禳之.

52) 『Goryeosa』 卷第20 世家20 明宗2, 十(1180)年九月辛酉 設消災道場 于大觀殿 以禳天變 등.

53) 『Goryeosa』 卷第55 志9 五行3 土, 明宗九(1179)年九月.

54) 『Goryeosa』 卷第17 世家17 仁宗3, 二十一(1143)年六月戊子 以王妃任氏有疾 設消災道場 於大觀殿 五日. 신우가 병들자 서연청에서 소재도량을 개최하였다(『Goryeosa』 卷第133 列傳46 辛禱1, 元(1375)年五月 禱有疾 設消災道場 于書筵廳).

55) 『Goryeosa』 卷第22 世家22 高宗1, 十五(1228)年六月壬戌 親設仁王道場 于宣慶殿 以禳狄兵.

56) 『Goryeosa』 卷第26 世家26 元宗2, 五(1264)年秋七月己亥.

57) 『東國李相國集』 卷第41 釋道疏, 仁王及金經法席疏; 『陽村集』 卷之27 疏語類, 太一年訂不利軍船下海波上安靜願仁王法席疏.

58) 고려 정궁의 특성과 건물별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1997) 및 前間恭作的 논문(『開京宮殿簿』, 『朝鮮學報』第26輯, 朝鮮學會, 1963)을 참고하기 바란다.

59) 『高麗圖經』 卷第5 宮闕1 乾德殿.

60) 『東國李相國集』 卷第39 佛道疏, 翰林修製, 佛頂道場疏; 修文殿行佛頂道場文.

61) 『Goryeosa』 卷第54 志8 五行2 木, 睿宗十七(1122)年七月 蟲食松 丙戌 設佛頂道場 于會慶殿七日 以禳之.

62) 『Goryeosa』 卷第54 志8 五行2 木, 肅宗六(1101)年四月 蟲食首押山松 辛丑 太史奏 蟲食松此兵微也宜行灌頂文豆婁寶星等道場老君符法以禳之 從之 毅宗五(1151)年八月 海州蟲食松自去歲至是爲蝗蟲所損 太史奏曰 海東古賢識記 鶴嶺有松城松爲君臣盜虵爲小人 蠅食松之時文虎亂政松變鶴木之歲天下白色.

63) 『Goryeosa』 卷第53 志7 五行1 火, 明宗十(1180)年三月癸丑 乾方有赤氣如火 設大佛頂 讀經 於內殿...

64) 『Goryeosa』 卷第19 世家19 明宗1, 八(1178)年(11)月 金遣八將軍兵來屯義州關外 十二月壬子 親設仁王道場于明仁殿五日.

65) 『Goryeosa』 卷第20 世家20 明宗2·卷第48 志2 天文2 月五星凌犯及星變, 明宗九(1179)年七月壬午 月犯太白 太史奏 避正殿 設仁王道場 于明仁殿 十日 以禳災變.

66) 『Goryeosa』 卷第19 世家19 明宗1, 八(1178)年十二月壬子; 卷第48 志2 天文2 月五星凌犯及星變, 明宗九(1179)年七月壬午.

전이나 이궁에서 개최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1171년 화재가 발생하여 정궁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자,⁶⁷⁾ 명종은 수창궁, 대명궁, 경희궁, 연경궁 등 이궁을 전전하게 되었다. 이후, 1180년 9월에 대관전(건덕전)에서 소재도량을 열었고, 11월에 강안전(중광전)이 중수되었으며, 1187년 2월에야 선경전(회경전)에서 소재도량이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⁸⁾ 앞의 불정도량과 인왕도량은, 정궁의 주요 전각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전이나 이궁을 사용하여 개최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석도량은 23회 중 사원에서 열린 2회를 제외한 모두가 궁궐에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가운데 12회가 문덕전에서 거행되었다(Table 3 참조).

제석도량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제석천을 모셔 놓고 베풀던 것으로,⁶⁹⁾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량의 하나였다(Hong, 1994).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전에서 1회가 개최되었을 뿐,⁷⁰⁾ 제1정전인 회경전은 물론 제2정전인 건덕전에서조차 전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문종대 이후 지속적으로 열리던 제석도량이 원 간섭기에 전혀 개최된 사실이 말해주듯이(Table 1 참조), 제석도량은 고려에서만 치러지던⁷¹⁾ 불교행사였다. 이것은, 제석도량에 대한 인식이나 종교적 위상이 중국 등에서도 열리던 불교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호국법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전인 회경전이나 건덕전에서 열리지 못했던 것은, 제석도량이 지닌 한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재도량, 인왕도량, 보살계, 그리고 불정도량과 같은 불교행사의 경우, 그것을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장소가 선택되었던 반면, 제석도량은 그것이 지닌 종교적 특성에 따라 개최 장소가 선택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5. 결 론

고려시대, 궁궐 내에서 개최되었던 불교행사 가운데, 개최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불교행사와 관련된 기록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불교행사의 개최 횟수 및 목적, 그리고 개최 장소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것의 개최 시기별 특징, 의례와 개최 장소의 관계, 장소의 위계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불교행사의 개최와 시대 상황, 그리고 불교행사의 개최 배경이나 종류가 개최 장소와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개최 목적에 따라 불교행사의 종류와 궁궐 내 전각이 선택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궁궐 내 전각에 대한 위계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고려시대의 불교행사는 예종, 의종, 명종, 그리고 고종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요나라, 금나라, 몽고의 위협과 같은 대외적 상황 또는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같은 대내적 상황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고려시대에 개최된 불교행사는, 국내외 정치상황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불교행사는 종교적 행사이자 정치적 행사였다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려라는 국가가 지닌 정체성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의 불교행사는 사원 또는 궁궐에서만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개최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 불교행사의 종류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불교행사를 동시에 치르거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불교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불교행사의 종류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을 보다 널리 알려 피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종류와 장소에서 불교행사를 개최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불교행사가 대내외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최 배경이나 목적, 또는 상황에 따라 불교행사의 종류 및 개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간섭기를 기준으로 일부 불교행사가 개최되지 않거나 재개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담선법회의 경우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지되기도 했으며, 원의 지원을 받은 장경도량이 원 간섭기에 집중 개최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불교행사의 개최 장소가 바뀌기도 하였다. 인종 때는 내란으로, 명종 때는 화재로 고려 정궁이 소실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궁을 중심으로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다. 원 간섭기에는 몽고의 침입으로 파괴된 정궁의 일부만이 복구됨에 따라, 정궁의 정전에서 열리던 주요 불교행사조차 편전인 중광전에서 개최되었다.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불교행사는 개최된 장소의 조건에 따라 해당 공간의 배치와 의례 절차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일부의 기록이지만,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의 조건에 따른 시설 배치의 차이는 팔관회와 연등회를 통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팔관회의 경우 3단이었던 부계가 연등회 때는 1단만 설치되었으며, 팔관회 때는 설치되지 않던 채산과 등롱이 연등회 때 설치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팔관회와 연등회의 개최 목적 및 개최 장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었다. 즉 팔관회가 대외적 행사였던 만큼 넓은 공간인 구정에서 개최되었던 반면, 대내적 행사였던 연등회는 구정보다 협소한 강안전

67) 『Goryeosa』 卷第53 志7 五行1 火·卷第19 世家19 明宗1 元年冬十月壬子.

68) 『Goryeosa』 卷第20 世家20 明宗2, 十(1180)年九月辛酉 設消災道場 于大觀殿 以禳天變, 十一月壬子重新康安殿成, 七(1187)年二月戊寅 設消災道場 于宣慶殿.

69) 『東國李相國集』 卷第41 釋道疏, 同前撰丹兵天帝釋齋跡; 又丹兵祈禳帝釋道場文.

70) 『Goryeosa』 卷第19 世家19 明宗1, 七(1177)年三月戊子 設帝釋道場 于內殿.

71) An, 1999, p.21.

(중광전) 일대에서 개최되면서 각종 시설의 배치 차이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궁에서 열렸던 불교행사와 개최 장소로 이용된 건물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격식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궁궐 내에서 개최된 불교행사들은, 불정도량처럼 종교적 위상으로 인해 개최 장소가 제한되었던 것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것을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따라, 회경전 혹은 대관전, 그리고 문덕전 등으로 구분되어 거행되었는데, 제1정전인 회경전에서는 국가적인 불교행사가, 제2정전인 건덕전에서는 국가적인 불교행사를 포함하여 국왕과 관련된 보살계 등도 개최되었으며, 국왕의 학문소나 편전으로 이용되던 문덕전에서는 국가적인 불교행사는 확인되지 않고 국왕의 기복과 관련된 것이 주로 열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통해, 궁궐의 상황은 물론, 불교행사가 지닌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개최되는 장소를 달리 하였으며, 이는 궁궐 내의 건물들이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계 및 격식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궁궐 등에서 개최되었던 불교행사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궁궐이 비록 고려를 통치하는 정치의 중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불교행사가 개최되는 기간만큼은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궁궐에서 개최된 불교행사의 횟수와 규모의 거대함, 그리고 개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궁궐의 일부에서는 일상적으로 종교 의례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의 궁궐은, 종교적 성격과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치 시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불교의 전래나 집권자의 성향, 그리고 대외 관계로 인한 불교행사의 존재 여부, 궁궐 내의 불교행사 개최 배경 및 목적과 이에 따른 장소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의례 기록을 통한 해당 공간에 대한 검토는 고려시대 건축과 궁궐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사원에서 개최된 불교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보다 광범위한 사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불교행사와 각 사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Goryeosa*(高麗史)
2. *Goryeosajeolyo*(高麗史節要)
3. An, J. (1999). *A Study on the national buddhist rituals of Koryo dynasty : focusing on Yondunghoe, Palgwanhoe and Jaesok Dorya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4. Han, K. (1998). *Koryo sawon ui kujo wa kinu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Monasteries during the Koryo Period), Seoul: Minjoksa.

5. Heo, H. (1997). *Goryeo bulgyosa yeongu* (*Study on Goryeo Buddhist History*), Seoul, Iljogak, 588.
6. Hong, Y. (1994). *Bulgyo Haengsa ui Seonghaeng*, Hankooksa 1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7. Hwang, B. (1993), *Goryeo Muin Jeonggwongi Sawon Seryeog ui Donghyang*, Hankuk Sasang Sahak, Vol. 4·5, 91-108.
8. Kim, D. (1997). *Building Composition and Sit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the Koryo Dynasty in the 11th and 12th Centur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31.
9. Lee, J. (1993). *Hanguk bulgyo sawon gyeongje yeongu*(*Studies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Buddhist Temples in Korea*), Seoul: Bulgyo Sidaesa.
10. Okumura, S. (1979). *Korai ni okeru Hakkan'e teki Chitsujo to Kokusai Kankyo*, Chosenshi Kenkyukai Ronbunshu, No. 16, Chosenshi Kenkyukai, 71-100.
11. Park, Y. (1996). *Koryo Sidae Sa*(*A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Seoul: Ilcisa, 331.

(Received Jul. 2 2015 Revised Aug. 3 2015 Accepted Dec. 22 2015)